

“하천쓰레기 자동수거로 금수강산 보존에 한몫 할래요”

군산대 경영학부 3학년 최미영씨 '제16회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기발하고 멋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사실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죠. 생각하지 못한 큰 상을 받아 기뻐요. 발명에 대해 눈에 뜨게 해주고 관심을 일깨워 준 아빠께 가장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시상식이 열린 '제16회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군산대 경영학부 3학년 최미영(22)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국대학발명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4,300여 점이 출품됐다.

최씨는 '하천쓰레기 자동 수거기'로 최고상의 명예를 안았다. 하천 양쪽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스크류를 돌려 물 위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그물망에 모아 처리하는 제품이다. 물레방아에는 소수력 발전기를 달아 전력생산까지 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품 아이디어는 산책길에서 얻었다. 개인 발명가인 아빠 덕분에 평소 주변 사물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

“어느 날 석양 무렵에 전주천 산책을 갔다가 떠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를 목격했어요. 자연형 하천의 수면에 잡동사니들이 동동 떠다니는 모습이 꼴불견이지요. 손이 닿는 가까운 곳이라면 건져내려고 하겠지만, 물 깊은 하천 중앙의 저 쓰레기들은 계속 흘러가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지요.”

구상에서 제품화까지는 3개월 걸렸다. 마지막 한 달은 계획서를 쓰고 그래픽 작업을 하느라 자정을 넘기며 일주였다. 마감직전 1주 동안은 새벽 4~5



제16회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군산대 경영학부 3학년 최미영(22)씨가 '하천쓰레기 자동 수거기'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까지 작업을 했다. 시제품을 만드는 데 적잖은 돈이 들어갔다. 주말이면 예상중에 나가 인쇄, 꽃 장식 등 알바를 하면서 번 돈을 모두 쓸어 넣었다. 그리고도 모자란 돈은 아빠한테 빌렸다.

주변의 도움도 받았다. 군산대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트리즈 등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발명의 원리,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가르쳤다. 아

빠는 물레방아를 만들 때를 비롯해 어려운 순간마다 조언을 해줬다.

최씨는 “여건이 되면 제품을 직접 생산해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걸 예방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라며 “예수의 제자 바울이 기복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도운 투디아처럼 꿈을 가진 발명가들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광복절 기념 전국응원·스피치대회 성료

8.15광복절 제72주년 기념과 한민족통일을 위한 제17회 전국응원, 스피치대회가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응원인협회 광주, 전남본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8.15광복절 정신 계승, 평화통일 계승을 위한 내용으로 한민족이 화합되고 단결하여 위대한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

이날 이숙자(남원시)씨가 전체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으며, 변현숙(전주시)씨가 대학일반부 대상, 유연곤(전주시), 김재욱(고창군)씨가 대학일반부 특상, 송경민(전주시)씨가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경찰서, '찾아가는 정보화장비 순회 지원활동' 펼쳐

군산경찰서는 본서와 관내 지구대, 파출소 20개소를 찾아 통신망을 점검·보완해주는 '찾아가는 정보화장비 순회 지원활동'으로 내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군산경찰서 정보화장비계에서는 통신 분야(PC, 무전기)와 장비 분야(차량, 무기)의 세밀한 현장 실사를 거쳐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실시하고, 고장이나 노후화된 장비를 보완하여 통신망의 장애나 중단으로 인한 업무지연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순회점검은 전산장비 점검과 정보화장비 관리 실태 파악, 정비·차량 안전점검, 현장의견 청취의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군산=장 현 기자

순창군청 오승규 선수, '코리아컵 국제정구대회' 우승 주역

국제정구대회인 2017 코리아컵 국제정구대회에서 대한민국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순창군청 정구단 오승규 선수가 그 중심에서 활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 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정구 강국 일본이 A급 정예 멤버를 출전시켰으며, 중국, 대만 등 15개국 300여명의 정예 선수들이 참여했다.

오승규 선수가 속한 한국대표 B팀은 필리핀, 일본 A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한국대표 A팀에 2대1로 승리했다.

오승규 선수는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지난 7월에 열린 2017 차이나즈컵 국제정구대회에서도 단체전 3위를 차지한 실력있는 선수로, 순창군정구협회 오성룡 회장의 자녀로 군청 정구단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원산경찰서, 전 직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원산경찰서는 28일 5층 대강당에서 종교 중립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원광대학교 김귀성 교수를 초청해 경찰의 종교중립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민 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9월 1일 시행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를 전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순찰 지점 및 시간을 직접 선택하여 스티커를 활용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경찰이 치안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순찰하자는 개념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인권 감수성 특강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동리국약당에서 전북인권교육센터 사무국장을 초청 경찰서장을 비롯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감수성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인권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이에 맞춰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언론 등을 통해 인권보호, 인권강화라는 말을 자주 접해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으로 인권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인권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립성 기자

전북대 졸업 지태영씨, 사회복지직 9급 서울·전북 '통합 수석'

올 2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지태영씨(25·사진)가 상반기에 치러진 사회복지직 9급 공채 모집에서 전체 통합 수석을 차지했다.



3월 18일에 실시된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채 모집은 총 1만1,012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8,671명이 응시했다. 수많은 응시자 중 합격한 인원은 단 578명이었으며 지씨는 그중 당당하게 통합 수석을 차지했다.

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4월 8일 총 접수자 1,171명, 응시자 874명 중 단 7명만 합격한 전라북도 제1회 공채 모집에서도 전주시 1등은 물론 도내 시군 통합 수석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지씨는 서울시에 임용됐다. 현재 서울시 합격자 578명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청 복지북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한편 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올해 사회복지직 5급 공채시험에도 졸업생이 합격하는 등 공공사회복지부문의 우수 인력 산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해은 기자

결혼

▲김노아(김 호·김애래씨 장남)군·김민희(김종문 부인)예총회장·채영숙씨(장녀)양 = 일 시 : 9월 2일(토) 낮 12시, 장 소 : 완주군 삼례 비비정농가(레스토링/이외무대, 연락처 : 010-3035-0584, 피로연 : 29일 부안컨벤션웨딩홀(예술회관 맞은편)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9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지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88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남원지사 632-3886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1-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이션관
- 어드벤처 라이다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다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